

수신 : 박영숙 이사장님

발신 : 한국여성재단

제목 : 한국여성재단 <'짧은여행 긴호흡' 최종보고자료집 반간사>
초고 검토요청의 건

내용 :

"이사장님, <짧은여행 긴호흡 최종보고자료집 반간사>(초안)을 보내드립니다. 배관팀과 이은희 사무국장님이 1차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사장님께 최종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나 검토 하신 후 보완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가 늦어져 죄송한 말씀드리며 가능하시다면 내일 오전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7년 여성계는 어느 해보다 많은 현안으로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미 FTA, 비정규직보호법, 17대 대통령선거 등에 여성계의 목소리큰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리고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는 낮은 곳에서 힘든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2007년은 여성단체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돌보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큰 대변하기 위해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신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짧은 여행, 긴 호흡'과 '도움닫기 프로젝트'가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고 피곤한 몸을 다독이는 큰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공의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여성 활동가들의 역량 제충전을 지원하는 '짧은 여행, 긴 호흡'과 여성단체 및 활동가의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도움닫기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여행, 긴 호흡'을 통해 격무로 소진된 많은 활동가들이 쉼을 얻고, '도움닫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적인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일종의 통합적 지원방식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듯 보이는 두 사업은 여성 활동가의 역량강화(Empowering)라는 큰 과제 안에서 균형 있게 맞물려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사업에는 19개 연수팀(100개 단체, 247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로써 지난 5년 동안의 참가자 규모를 합산하면 총 1,204명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쉽을 지원하는 사업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단체들 간의 네트워킹과 연대활동의 강화,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이웃 나라들과의 국제적 연대 모색 등 짧은 여행 후에 이어지는 여성공익활동의 긴 호흡을 지켜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보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본 사업이 지속된 동기이자 힘이며, 사업이 견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3년째 진행된 '도움닫기 프로젝트' 또한 이러한 성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참여한 단체와 활동가들에게서 보다 나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도약의 발판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쉽과 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가기 바라며, 이들의 열정과 신념에 한결같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적 가치와 사회공헌의 정서로 볼 때, 누군가의 쉽을 지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묵묵히 5년 동안 이 사업을 후원해주신 <교보생명>에 마음을 다해 큰 감사의 드립니다. 기업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가까운 이웃이자 아낌없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여성재단이 이 특별한 여행에 앞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